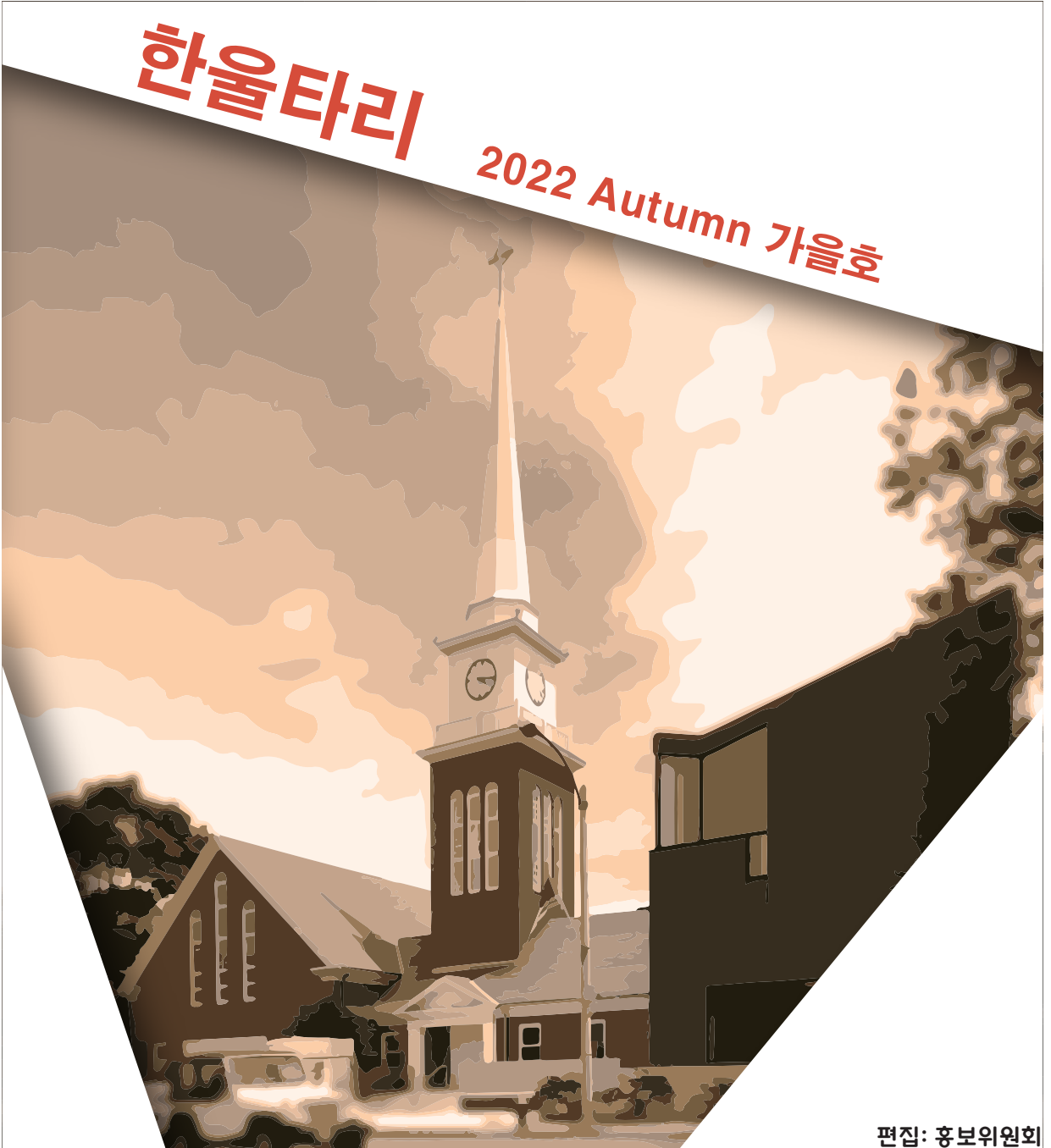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2 No 3
2022.11.20.

한울타리

2022 Autumn 가을호



편집: 홍보위원회

가을과 영성

‘사계절 (Four Seasons)’ 하면 비발디가 떠오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어느 현악팀이 사계절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사계절’인데 작곡가의 이름은 피아졸라였습니다. 사계절을 작곡한 또 다른 음악가를 처음 접했습니다.

아주 탱고풍이 흐르는 멋진 곡이어서 더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에게 새롭게 와 닿은 것은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었습니다.

순간 영성가들의 글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가을을 삶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낙엽이 진 후 떨어진 낙엽은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썩어 간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땅을 따뜻하게 보호해 줘서 봄에는 다시 나무가 새싹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가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거친 후에만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의 생각에 젖은채 피아졸라의 음악에 잠시 심취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키운 희망이 봄을 맞이할 때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당회 서기 장양술 장로

• 당회는 지난 시월 초 우리 교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영어 예배부를 시작하게 하기위해 Task Force를 발의 시키고 임시명칭을 EM/BM TF(English Ministry/Bilingual Ministry Task Force)라하고 팀장에 강상철 장로와 팀원으로는 이혜승 장로, 김승욱 집사를 인준하였으며 우선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동안 월1회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벌써 첫 예배가 성공리에 10월 30에 드려졌습니다.

• 다른 교회나 사회단체보다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오랜 팬데믹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Covid-19 가이드라인을 완화 함에 따라 11월 첫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친교와 식사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2부 예배 후 다과가 둘째 주일인 11월13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부다과는 마리아 여선교회와 권사회가, 2부다과는 에스더 여선교회와 집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고 은혜롭게 우리 교우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주일예배와 토요기도회가 큰 어려움없이 잘 진행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1. 주일 1, 2부 예배: 10월 2일 세계성찬주일/정의평화환경주일예배, 10월 23일 청년부 헌신예배, 10월30일 종교개혁주일예배, 11월 6일 청지기헌신예배, 그리고 11월13일 부부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2. 제직임직예배: 9월 18일 2부예배는 제직임직예배로 드려졌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작년에 임직을 하지 못한 분들과 올해 임직자들이 함께 임직을 하여, 15명의 안수집사들, 2명의 권사들, 그리고 4명의 장로들이 임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러지는 임직식이 많은 분들이 임직함에 따라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3. 1, 2부 찬양대: 매주 1,2부 찬양대가 꾸준히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박요미 (소프라노), 윤동은 (테너), 임민선 (테너), 구자운 (바라톤) 교우가 합류했습니다.

4. 찬양팀: 찬양팀의 주관으로 11월12일 토요일 7시30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 1, 2부 주일예배와 온라인방송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 제작팀, 방송실팀, 동시통역팀, 그리고 예배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7시30분부터 교회 분당에서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이 열렸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보스톤한인교회 찬양팀이 주관하고 예배예술회위원회가 주최-후원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찬양과 기도의 밤은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신앙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이영길 목사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 3:2)’의 말씀 아래 결단의 찬양으로 이어진 후 이영길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좀 더 많은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밤이었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방송실 봉사로 섬겨주신 김영돈 집사님,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온전히 찬양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자원해 큰 도움을 준 청년1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아시스 음악의 밤 행사〉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오아시스 음악의 밤이 팬데믹 기간, Virtual Concert로 2회(2020, 2021) 열렸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처음으로 대면 음악회로 10월 29일(토) “Music for a New Chapter”란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Oasis Music Series Presents
FREE CHAMBER MUSIC CONCERT
A New Chapter 10.2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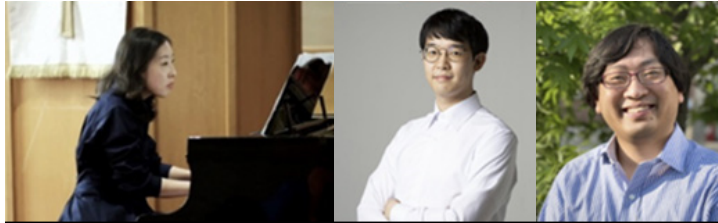
7 PM At Korean Church of Boston Main Chapel
38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www.oasis.org





연주자

김지은(첼로), 송하영(마림바), 유진선(피아노), 육혜진(피아노), 이은미(바이올린),
임주광(올겐, 작곡), 정윤원(피아노, 작곡)



이번 오아시스 음악회는 특별히 교육 2부 부서- 부부청년부, 청년 2부, 청년 2부-에 소속한 음악인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음악회를 위해서, 정윤원 형제가 Music Director를, 임주광 형제가 Co-Director를 맡아주었고, 이 두 사람의 작곡한 곡들이 Premier로 연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멋진 연주를 선사해 주신 모든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음악회를 위해 뛰어주신 오아시스 팀원들과 연주자들/Staff 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신 교육 2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민 장로

Nicaragua 이동홍 목사님/선교사님의 서신을 나눕니다.

“다시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마치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전도대회를 2023년 2월 24일과 25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니카라과 상황은 절실하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 4월 민주화 시위가 무력 앞에 좌절되고 많은 반정부 리더들이 옥에 갇히고 많은 이들이 희망없는 니카라과를 떠났고 또 떠나려 합니다.

전체 인구 660만명 가운데 30만명이 니카라과를 떠났고 2,000여 비영리 법인들이 인가 취소되고 정부에 그 자산을 몰수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개신교 비영리 법인까지 인가 취소 당하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카톨릭 주교가 가택 연금 당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신부와 신학생 9명은 불법 연행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11월 6일 거행된 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이 17.3% 기권율이 82.7%에 이르는 가운데 집권당인 산디니스타 후보들이 153개 시 모두를 장악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카톨릭 성인 축제도 성당 안에서만 허락하고 심지어 개신교 최대 연합 행사인 성서의 날 행사도 가두 행진이나 전도는 금지된 채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8일 마사야 주 교회협의회 회장들과 전도대회를 위한 협의를 거친데 이어서 11월 5일 마사 주 목회자들에게 전도대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께나아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선택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08년 부터 2020년 11번의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통하여 208,700명이 회집하였고, 6,359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 축제를 우리는 목도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니카라과를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전도대회 장소 섭외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2. 전도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섬길 단기팀을 위하여
3.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를 위하여
4.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5. 각 시와 지역별로 진행될 전도요원 훈련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두 손들어 외칩니다. “니카라과를 그리스도에게로 “

주후 2022년 11월 8일 니카라과에서 선교사 이동홍 드림”

Worship Service

Our church leadership decided to start English worship service in 1989 for mainly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the greater Boston area.

On the first Sunday of March in 1989, our first English worship service was given. It was the first English service for Korean churches in this state.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English worship service group had grown through the years, but the group decided to be an independent church (Bethany Presbyterian Church)

instead of remaining as a part of our church. It was a bittersweet experience for the church leadership. So good to see the second-generation group had grown but leaving the church was difficult. This left our church with needing to have English worship service which will remain as a bedrock



of our church for now and many years to come. Last few years the church leadership established a task force to start the English worship service and we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only communicate using English. But we couldn't find a big enough population for demography. After a few years we realized that we have many people who are truly bilingual, Korean & English, and a possible preferable language for worship service is English.

Our church, KCB, leadership formed the new task force to start a worship service for English and bilingual people (EM/BM) at our church. So, this task force decided to organize one English worship service a month fo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as pilot run. Learned from our experience with Bethany Presbyterian Church's separation from our main church, we want the English worship service to stay at our church as a permanent ministry of KCB. Along with that spirit, the task force decided to have the worship service to start and end at the same time as the second Korean service. In that way, we are giving the people an option to join the English service and join back to Korean service community after the service ends.

We had our first EM/BM service on October 30th Sunday. It was very blessing time for everyone who participated at the service. The task force will decide how often we will have the service starting next year. Organizing the worship service requires a lot of renouces and effort. We as a church are looking forward how God will bless this EM/BM ministry at our church. Please pray for this our English worship service.



박미영 교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저희 가정은 2021년 팬데믹 기간에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제한된 활동과 교육을 받아야만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 속에서도 해바라기 유치등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재밌게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22-2023 보조교사 제안에 저는 당연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아이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율동, 말씀과 예배, 분반공부로 이뤄지는 해바라기 유치등부 예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준비됩니다. 훌륭한 김수영 목사님과 담당 장로님, 부장, 부감, 총무 집사님과 교사들, 찬양팀, 테크/셋업팀, 홍보팀, 학부모회로 섬기시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어린이들의 예배를 위해 매주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과 율동을 통해 아이들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덩이를 흔들며 뿔을 뛰며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배운 찬양을 평소에 흥얼거리며 춤추는 모습을 볼 때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김수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속 인물과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날로 쌓여가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신 설교임에도, 저도 함께 해바라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매주 이뤄지는 분반 성경공부 시간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각 반 아이들의 수준과 선호도를 고려하며 재밋고 즐겁게 말씀을 배우도록 주제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말씀 전달과 활동을 진행하기 쉽지 않지만 매주 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료들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만든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한 주, 한 주 해바라기 유치등부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도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기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매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바라기의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여 빛과 소금으로 빛나도록,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큰 사랑을 베풀어 생명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이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해바라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하은(Heather Lee) 교사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2-23

What a blessed start of the year! From welcoming new 6th graders to hosting a pumpkin decoration fellowship event, Ransom Youth Group has had a fruitful fall semester. We are blessed to have the leadership and organization of Elder Sang Kang and Pastor Kyung Mi Bae, who have been leading RYG into a new year and chapter as we rebuild and reform our programs and services.

RYG has opened up an exciting new chapter in our program. In September, the RYG staff worked together to determine our theme and plan out our yearly events. With the theme of “Sustainable Youth Ministry,” Pastor Kyung Mi Bae facilitated this systemic planning session in order to create structures that will keep our youth ministry going strong for hopefully many years. We are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ing a personalized, Bible study plan where each RYG Bible study teacher brings their own expertise and insight in collaborating on a Bible study plan that will best suit our students.

RYG welcomed a new sixth grade class that graduated from Sunflower at the turn of the school year. They have brought much joy and laughter to RYG. Their Bible study teacher, Joanne Lee (이예은) will be walking them through a thorough curriculum of the Bible, where she will cover basic stories in a chronological order.



Seventh grader Erin at our pumpkin-decorating event



The new sixth grade class!

Our youngest members have been especially inquisitive and making great contributions to their classes. Seeing them hunger to know more about the Bible and asking great questions is a reminder to me that curiosity of the Bible is a beautiful thing, and that it is a blessing to have students who have curiosity in droves.

We are also blessed to be welcoming Anna Choi and 채주영 into the staff of RYG! For many years, especially during COVID, we were moving much of our activities and services online. But as we have expanded our activities more and more to in-person services, having an extra hand in Mrs. Choi has been helpful. 채주영 is our newest treasurer and we are endlessly grateful for all she is doing behind the scenes to keep RYG running as smoothly.

This fall has had many ups and downs, but they have been like growing pains for RYG. As we move closer and closer to the spring semester, we hope for the constant recentering of our hearts onto Jesus Christ and for endless love and peace to flow from us always. God bless~

P. S.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three more Bible study teachers because our current staff will shrink in the Spring. Please pray for wisdom in our leadership as they look for new people to join the RYG volunteer staff!

MISSION STATEMENT FOR RANSOM YOUTH GROUP



MISSION STATEMENT

The youth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is a community for its youth and their friends that aims to sow the seeds for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so that the students will become people who know they are unconditionally loved by Christ, love God, and love their peers.

The youth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is committed to changing children's lives by giving them a Christian perspective, so that Christ is a part of their lives.

The youth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seeks to serve others to build up their faith. We draw inspiration from Mark 10:45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ESV) and the Parable of the Sower. We energize and equip teenagers to extend the love of Christ to the world.

VALUES STATEMENTS FOR RANSOM YOUTH GROUP



VALUES STATEMENTS

Come As You Are: We affirm an environment in which we can come just as we are to church and be loved wholly by Christ and each other.

Growth: We endeavor to be lifelong disciples who are continually growing in our faith.

Explore: We are open to searching and understanding tough questions about our faith.

Service: We seek to serve the wider community in which we are situated in and be a blessing to other people.

Celebrate: We rejoice in our faith in Christ and take time to enjoy the goodness of God in our lives. We take time to cheer all that Christ continues to do in our community.

이요한 목사

저희 청년1부는 가을 학기 후반기를 보내며, 11월부터 금요모임에서는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을 주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모임에서는 가을 학기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예수님이 답이다]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모임은 격주마다 청년 1, 2부 연합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집회시간과 집회 전후 친교시간이 더욱 뜻깊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을의 주요 행사로는 청년부 헌신예배와 청년1부 가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시 110:1~7,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청년들이 준비한 순서들도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시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서로 연합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헌신예배 후에는 Pumpkin Carving 친교시간을 청년 1, 2부가 함께 가지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청년1부 가을수련회는 팬믹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Pilgrim Pines Center (Swanzy, NH)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히 11:1~2, 6)을 주제로, 조은일 목사님 (BU School of Theology)을 강사로 모시고, 11월 4일(금)에서 6일(주일), 2박3일 동안 가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기도회 집회시간, 여러 즐거운 친교시간을 가지며, 청년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해 남은 기간동안 11월의 추수감사절 기간, 12월의 학기말 일정들과 성탄절 기간, 연말 일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청년1부 주제(“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Encounters with Jesus” (요 1:41))를 다시 묵상하며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동안 청년1부를 향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서포트 해주시고, 주일 점심식사를 도네이션 해주신 많은 교우님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을 수련회, 헌신예배, Pumpkin Carving
청년 1부

청년 2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을 학기에 많은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청년 2부 임원회에서는 2022-2023년도의 청년 2부의 새로운 표어와 주제 성경귀절을 아래와 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향해 귀한 섬김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다.

2022-2022 청년 2부 새로운 표어와 주제 문구

표어: 'Uniting Love, Within and Beyond'

주제 성경귀절: '1 Corinthians 12:13' -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 Jews or Greeks, slaves or free - and all were made to drink of one Spirit."

새로운 표어 아래, 청년 2부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연합을 추구하며, 청년 1부와 금요 연합예배를 더 자주 갖기로 하고, 9월부터 격주로 금요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1/2부 헌신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되어 귀한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섬김을 향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시즌을 맞아 공동체의 연합과 사임을 위해 10월 15일(토)에는 가을 단풍 야외모임으로 West Rattlesnake Mountain을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10/16일(주일)에는 헌신 예배후에 청년 1부들과 함께 작년도에 가졌던 Halloween Pumpkin Carving 대회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9일(토)에는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오아시스 음악의 밤을 위해 청년부원인 정운원 형제(Music Director)와 임주광 형제(Co-Director)가 섬겼습니다. 교육 2부에 속한 부부청년부, 청년 1부, 청년 2부의 음악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에 밤이었는데, 이날, 정운원 형제와 임주광 형제의 작곡한 곡들이 Premier로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11월 행사로는 Thanksgiving 날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Thanksgiving Dinner를 나눌 예정이며, 11월 27일에는 집사회와 연합하여 Boston Rescue Mission Homeless shelter에 저녁식사제공을 위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우 동정으로는 지난 회기에는 부회장으로, 그리고 현 회기에 총무로 섬겨주었던 김현범 형제가 한국에 직장이 되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 김학주 교우

2022년 가을의 부부청년부 (올해의 표어 “풍성한 말씀, 감사하는 찬양, 온전히 매는 사랑의 공동체” 골로새서 3:14-16) 는 격주 대면 형식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형식으로, 다른 한 주는 교제 위주 (형제자매 모임, 새 가족 환영회 등)의 형식으로 모여, 온라인 모임인 성경 묵상 나눔 카톡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부청년부를 찾아주신 최정훈/강혜민, 곽태경/박한아, 이정호/김새롬, 엄순호/곽보람, 전선/김현지, 김우식/김승현, 유동현/김주희, 김홍민/최희주, 송동현/구다희, 홍찬영/황소연 가정과 환영회를 진행하였고, 8월부터는 코로나로 멈추었던 점심 식사 당번이 재개되었습니다. 9월은 장폴/이세아 가정에서의 득녀 (장예원), 김승욱, 김혜민 안수집사님의 임직식, 그리고 교육 2부를 섬겨주시는 구용한 장로님의 안수식 등 기쁜 소식으로 꽉 찬 한 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Made to Worship”이란 주제로 부부청년부 찬양의 밤 행사가 은혜로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11월 13일 주일날 2023년도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차기 회장단 선거 그리고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부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부청 졸업자

부부 청년회

권사회에서는...

9월 청년 1.2부 2회에 걸쳐 점심식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홍영희권사와 김은미권사의 임직식때 축하 꽃과 카드를 전달하였고, 이성혜 사모님께 생신때 축하 카드와 작은 정성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12월4일(주일)에 목사님을 비롯 교역자 5분께 감사의 말씀을 적어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고, 아울러 예배를 위해 여러모양으로 헌신 봉사하신 분들께 약소하지만 대신 감사와 사랑을 한아름 듬뿍담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2월9일(금)에 2022년 권사회 정기 총회가 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권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하여주신 권사회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권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져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극상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께 전화와 문자로 그리고 덕의 문 앞에 위로의 메시지를 적은 선물 전달은 계속됩니다.

전세계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공효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길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기 임진희 교우

2022년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아침 저녁 쌀쌀한 기운이 가득한 11월입니다. 올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길 바라며 에스더 여선교회 인사드립니다.

에스더 여선교회는 2021년 12월 회장 서정희 집사님, 부회장 최수경 집사님과 함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며 준비했던 에스더 헌신예배를 기억하시나요? 에스더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예배실 헌화, 임직식 코사지, 그리고 부활절 헌화 등을 준비하는 봉사를 담당했는데요. 얼마전에 있었던 제직 안수임직식에서는 코사지 외에도 특별한 정성이 담긴 간식이 성도님들께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2부 예배후
친교다과 봉사

<제직 안수임직식 코사지 및 간식>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렸고 완전히 돌아오진 못 했지만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스더 여선교회에 다가온 변화는 11월 중순부터 팬데믹 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 후 다과를 다시 준비합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졌던 보고픈 얼굴들을 마주하며 예배 후 친교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예배 후 하나님 뉘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마스크 없이 만나 서로를 중보하고 보듬어가는 시간이 다시 자리 잡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회장 진정원 집사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최고의 절기 대강절이 있는 11월이네요. 바빠 흘러가는 시간속에서, 올해의 마지막을 주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스톤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맘껏 누리시며, 사랑과 열정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9/18 : 제직 임직식 예배때에 특별 다과를 준비를 도왔습니다.
- 11/13 : 집사회와 함께 교회 외부의 대강절 장식
- 1부 예배후 친교 봉사
- 11/20, 12/11: 청년부 식사 봉사 (싸인업) 예정
- 11/20 : 김동숙 권사님을 도와 노숙자 음식 봉사 예정
- 11/27 : 추수감사절 감사 다과 준비 (1부 예배) 예정
- 계속해서 교회 입구를 꾸몄습니다.



회장 윤병준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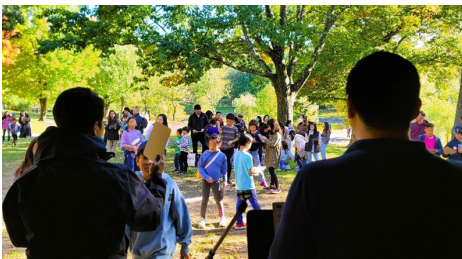
어느새 보스톤의 아름다운 가을도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비록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보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올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 훈훈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올해 10월 두번째 주일에는 지난 몇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전교인 야유회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예배도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다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때도 있었는데, 참 길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삼세대가 다함께 모여서 마스크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환한 미소를 마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진행되되는 소중한 행사이다 보니,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하면 어쩌나, 미처 생각하지 못해 빠뜨리거나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어쩌나, 준비과정 내내 조금 마음을 졸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스톤의 멋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날씨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선해서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여러 제직과 성도님들 덕분에,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었는지요! 도란도란 둘러 앉아 맛있게 식사 하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가슴 속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삼세대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대를 떠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즐길만한 좋은 레크리에이션은 무엇이 있을지 많이 고민 했었는데, 한 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제안해 주셨던 “빙고” 코너가 그렇게 성공적일 줄은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해바라기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상록회 어르신들까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들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들었던 빙고 게임 이야말로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요? 게임이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빙고가 이렇게나 재미있는 게임인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빙고게임도 너무나 즐거웠지만, 사실 모두가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은 그만큼 우리가 주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 그리고 활동들이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이날 전교인 야유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렸던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만남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나날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임 제직 답사

양수연 안수집사

먼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아끼지 아니하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리, 성경, 묵상, 예배, 기도, 지역사회, 선교 등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을 향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는 동안, 직분의 의미를 곱씹고,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그 동안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하는 기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나의 나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며 충성된 종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명예가 아니라 봉사 자리로 겸손하게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고 오직 섬김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귀한 직분을 받은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신 진리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경건한 행동과 언어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보스턴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안수집사

오래전 흘날려 버려져 있던 씨앗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0여년 전 저의 삶속에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보스턴 땅으로 부르시고, 결혼을 통하여 이곳 보스턴 한인교회로 오게하시며, 또한 오늘 이곳에서 제직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미국 땅에 오기전의 저의 삶은 하나님을 모른채 방황길에 생명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제 삶에 구주로 고백하는 축복의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건데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집도 많이 세고 남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제가 듣고 싶은대로만 듣고 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 저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임직식을 통하여 제직으로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직의 자리로 다시한번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슨일에 앞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힘쓰겠습니다.

그저 저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가운데 드러나오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새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해주신 이영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여 주신 가족분들과 믿음의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너희들도 가서 이와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길 다짐하며 이만 끝을 맺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권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보스톤 한인교회 권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때 86년도에 첫아이 진회를 출산하면서 의료사고로 원인모를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언니의 권유로 지금의 형부인 이문영 장로님 형님이신 목사님을 소개 받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려만 달라요. 친정, 시집 식구 모두가 불교 집안이라 시집 식구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감당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아픈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생활을 하다보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을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던 중 세회를 갖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모 아기 다 위험하다고 했을 때도 절대로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번의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을 접고 2001년도에 언니들이 있는 미국 보스톤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언니를 따라 이곳 보스톤 한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분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적응할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몸은 비록 아팠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교회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도너츠를 자르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 진희와 세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목사님과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낳아서 각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들 사위들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우리가족 모두 9명이 이 보스톤 한인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만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찾아와서 교회를 못간지가 너무 오래돼서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게을러 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뿐인데 이런가운데 제가 권사직분을 받으라고 했을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다시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 믿고 일하시는 분들과 동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모든분들 축하드리며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실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것을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용한 장로

먼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임직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려 주시고, 또한 미약하고 죄투성인 저를 거두어 주시고 장로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심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밖에 없음을 이 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은 후 저는 3월달부터 담임목사님이신 이영길 목사님과 윤경문 목사님의 인도하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섯 분의 피택신임안수 집사님들과 세 분의 피택신임장로님들과 함께 6개월에 걸친 12번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교육을 통해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을 배우며, 제가 걸어온 신앙의 삶 여정에서 가장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과연 제가 진심으로 보스톤 한인교회를 저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8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었을 때 보스톤한인교회의 이영길 목사님과 윤경문 목사님께서 저의 어머니처럼 마음 아파하시며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후로 부족한 제가 지난 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육 2부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기 위해 늘 수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윤경문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김수영 목사님, 김영범 장로님과 한문수 장로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순종이 산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가운데 더 낮은 곳에서 섬기려 합니다.

아울러, 오늘 나뉘주신 권면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와 목상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세계를 향한 교회, *한 민족에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제 어머니 공경희 권사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 구원종 장로님과 제 아내인 마리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혜승 장로

할렐루야! 방금 안수반은 새내기 장로 이혜승입니다. 앞에 분들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말씀하셔서... 이하동문입니다 하고 내려가고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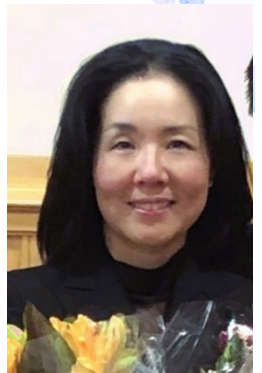
먼저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굳~~이 실행에 옮기신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그려셨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빠시게 기도해야될 일을 선물하시고, 성경공부 좀 게을리한다 싶으면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는 극.딜.을 선사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좀 쉬어볼까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장기프로젝트 팀으로 부서를 옮겨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채울 것 많은 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걸로 봐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거란 믿음은 확실하게 주시는 듯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려고하는 말은 아닌데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보스톤 한인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보스톤 한인교회가 어머니의 교회 맞습니다. 오랜기간 장기 프로젝트로 절 키우시느라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늘 gourmet 음식 만들어 먹이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 때부터였다 봅니다. 요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요리 잘하는 분을 열심히 모시려는 성향이 생기게. 저 하나 콕다주시려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서 한시간 두시간 먼저 집을 나서시던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 성실함과 수고하심 덕분에 교회 한 번을 못 빠졌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판매 갈까봐 결국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랑 결혼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작품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장로로 섬기라는 무거운 숙제를 떠합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공동의회가 있던 날 저희 첫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에서 저에게 한 말인데요. "Congratulations 이혜승 장조림" 장로님이랑 살짝 헛갈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많은 엄마가 찰떡같이 알아듣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모든 걸 가능케하시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도 엄청 받았습니니다. 받은 복을 감히 세어볼 수조차 없게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입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 최선을 다해 베풀며 섬기겠습니다. 너무 다짐하다보니 살짝 하나님께서 매~~우 아낌없이 쓰시리라 예상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화살은 이미 오래전에 활을 떠난 듯 싶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여정이 많이 기대되고, 또 긴장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동지분들 모두가 기도로 동참해 주실줄 믿고 이제 출발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근 장로

안녕하십니까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장로로 임직 받는 정광근 인사 드립니다.

너무도 조심스럽고 귀한 단에서 직분을 허락 받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감히 전하게 되어 사실 많이 떨립니다. 무엇보다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찌하여야 할지 몰라 더 그렇습니다.

도무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유혈절 어린양의 피처럼 저의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대속의 피로 이 죄인은 죄를 용서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또한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염치없이 그냥 넘죽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셨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어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값을 치루고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져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요...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지 모르지만 제 코 끝에 호흡이 거두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더욱 깊고 깊은 믿음의 삶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신 강령,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이 기도와 간구가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며 무엇보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루 하루 힘쓰겠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가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 접붙여진 가지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여정에 열심과 충성을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멋진 여정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정 어린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국에 계신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기쁨으로 낳아 주시고 정성으로 길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선배이자 귀한 아내 이동화 집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중의 축복 정민아, 정민우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많은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서도 이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다려 준 보스톤 한인교회와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최현구 장로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교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장로임직을 받게 된 최현구입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택신앙입니다. 모든 모택신앙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의 신앙은 드라마틱한 간증이 될 만한 이정표가 없는 평범한 여정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결혼을 하고 Post-doc으로 보스턴에 오게 되었고, 친한 후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스턴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원래 계획하고 원했던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보스턴을 내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때에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삶을 통해 진흙같은 나를 당신의 손으로 빚어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신 그 시간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임장로로 추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고사하려던 중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너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는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뭘 해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주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뭘 해내야 하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 구절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To grow as we go with Jesus”. 공천위원장님께 수락의 답장을 보낸 것은 물론 이구요.

이번 제직교육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담임목사님께서 은사의 특징을 F,U,N (Free, Unique, Nurture) 이라고 하시면서 교회도 FUN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동감합니다. 교회가 FUN해야 하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전달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만끽하며,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동역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시오. 끝으로 보스턴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순절 묵상집 발간을 위하여...



사순절 묵상집
2022

SOSS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마련하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읽으며 아름다운 사순절을 맞고자 합니다.

재의 수요일(2023년 2월 22일) 로 시작 되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교우님이 보내주시는 묵상의 글(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눌 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기도 시 등이며, 분량은 1페이지 정도 (작은 사이즈 책자로 만들 예정임)로 쓰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순절 기간 묵상을 위한 성서 한 구절과 제목을 넣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한 줄로 된 기도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보내실 곳: E-mail: kcblent@gmail.com, 혹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
원고 마감: 2023년도 2월 1일
(가능한 한 일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드림

나누고 싶은 모습



전교인 야유회



청년1부 수련회



신임제직 특송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